

CONTENTS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3.07



- 02 FOCUS 탄자니아 비전트립 특집
- 08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복지재단
- 10 해외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12 해외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 14 천사기업 한일이화
- 16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 000다
- 17 봉사자 나눔터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18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19 다일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4 후원안내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3년 07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철민, 김효은, 목정수, 박정식, 이가영, 이태형, 황선아
사진 | 목정수 디자인 | 이진희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나쿠펜다 아프리카

Nakupenda Africa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탄자니아 비전트립 2기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프리카 2기 다일비전트립’이 6월 3일(월)부터 12일(수)까지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열렸습니다. 다일공동체의 아프리카 비전트립은 내가 나를 만나고 이웃을 만날 뿐만 아니라 펼쳐놓으신 복음서 같은 대자연의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주 특별한 여행입니다.

이 특별한 여행에 최일도 목사님과 열 한 분의 후원회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UN이 분류하는 세계 3대 빈민촌에 속하는 케냐의 ‘키베라’ 빈민촌을 방문하여 빈민들의 생활을 둘러 보고 이웃을 만났으며 또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에 가서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보며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쿤두치 밥퍼 센터 개원예배가 주님께 드려졌고, 채석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빈민촌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가정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인호 장로님께서 행복편지를 통해 소개된 ‘샤바니’의 손을 일대일 결연을 통해 잡아 주셨고, 김영철 집사님께서 ‘찰레헤 알리’와 ‘마로가 알리’ 형제의 손을 잡아 주셔서 감사와 감동이 배로 넘쳤습니다.



2013년 6월 8일 토요일

탄자니아 쿤두치 밥퍼 센터에서는 신명나는 축제의 한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노천에서 밥을 하였는데 새로 오픈한 쿤두치 밥퍼 센터 마당에서 처음으로 하는 밥퍼! 그것도 탄자니아 사람들이 절기와 축제 음식으로만 먹는 귀한 음식 ‘필라우’를 준비하였습니다. 쌀 보다 가격이 낮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아 먹는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쌀밥은 너무나도 맛있고 귀한 음식입니다. 쌀에 필라우 가루와 갖은 양념을 넣어 지은 ‘필라우’와 곁들여 먹는 고기 감자 스튜인 ‘나마 음추지’, 양배추와 갖은 야채를 썰어서 같은 토마토와 함께 버무린 샐러드 ‘카츄마리’.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맛있는 메뉴와 함께 비전트립 팀에서 정성스레 가지고 오신 달콤한 막대사탕과 양질의 볼펜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 얼마나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입니까! 최일도 목사님과 비전트립팀도 무릎을 꿇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밥 한그릇씩을 전해 주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 손으로 받을지언정, 주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며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께서 1988년 청량리 역광장에서 시작한 작은 나눔의 실천이 25년이 지난 지금 서울 청량리를 넘어 아프리카 탄자니아 쿤두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Tanzania Vision Trip



Children photo gallery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리고 정든 탄자니아 다레살람을 떠나기 하루 전날,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팔았던 지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참혹의 현장 '바가모요'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1월, 1기 비전트립 때도 방문하였던 바가모요! '바가모요'는 '내 심장을 이곳에 두고 간다.' 라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입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서 배에 타게 되면 두 번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바가모요!'하고 외쳤던 아픔의 땅의 이름을 이들은 아직도 '바가모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탄자니아를 방문했던 비전트립 2기 모든 분들이 이 땅의 천진하고 순진한 아이들의 영혼을 보고 그분들의 심장을 탄자니아에 '바가모요'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픔의 절규로 외치던 바가모요가 이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바가모요' 하신 그 마음으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 될 것을 믿습니다.

글/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변창재 원장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임, 탄다사모 결성'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봉사 갔다가 감사와 감동을 안고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최일도 목사님과 비전트립팀이 모임을 갖기로 결단하고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임' 일명 '탄다사모'를 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다일비전트립 1, 2기 멤버가 주요 참여 멤버입니다만 일년 이내에 다녀올 것을 약속하시거나 저희들과 미리 만나서 아프리카 다일의 비전을 공유하며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기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부회장 최일인 010-4037-0401

Nakupenda Africa

Tukila chakula hiki,
tutakuwa chakula cha watu wengine
투킬라 차쿨라 히키,
투타쿠와 차쿨라 차 와투 웅기네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1. 김영철 (주교권 대표)
'비전'을 찾는 여행. 이번 비전트립은 저의 남은 삶의 방향, 목표 비전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땅, 하늘은 맑고 바람은 청정한 땅.. 처음 탄자니아에

발을 딛었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한이 서린 땅, 사람에게서 인간미가 느껴지는 땅,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한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비전트립 중 제 마음에 깊숙이 박힌 장면이 있습니다. 밥퍼 사역 중 6~7살 먹은 여자아이가 한살배기 동생을 업고 밥을 받으러 오는 모습입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아이가 너무도 진지해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흘러내리는 동생을 치켜 올리고, 한 손으로는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찢혔습니다. 그 아이에게 매일 밥을 퍼주고 싶어서 찢혔고 무거운 동생을 대신 안아주고 싶어 찢혔습니다.

내 아들처럼 똑같이 사랑할 존재. 불쌍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맑고 영롱한 눈빛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 목정수 (다일복지재단 홍보과장)
다일복지재단의 홍보실 과장으로 현지 선교상황스케치를 위해 비전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덥지 않고 오히려 쌀쌀한 현지 날씨에 놀랐습니다. 아프리카는 1년 365일이 덥기만 하다는 저의 고정관념을 한 순간에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먼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무엇을 보고 듣게 해주실지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과 설렘으로 탄자니아 땅을 밟았습니다.



가난하고 가진게 없어 불행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티 없이 맑고 밝은 아이들의 눈 속에서 아프리카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현지인 교회에서 드린 뜨거운 열정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잊을 수 없는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경험한 은혜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하는 불쌍한 사람. 아프리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유대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춤추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랑의 수고가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구별에 한 형제 자매로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나쿠펜다 아프리카! 아멘!



3. 박미자 (뉴욕, 후원회원)
탄자니아 비전트립 1기를 보며 탄자니아 비전트립에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탄자니아 비전트립 2기에 동행할 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탄자니아는 굉장히 먼 곳, 쉽게 움직이기 힘든 곳이라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고 보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지만 열고 보니 우리는 가까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탄자니아 아이들의 사슴같은 큰 눈망울은 까만얼굴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땅, 탄자니아는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역시 눈으로 보았을 때 마음도 품어지고 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며 눈에 담고 온 지금 이순간, 이 감동은 잊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4. 유현주 (서울 다일교회 집사)
평소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탄자니아 비전트립을 통해 직접 선교를 경험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선교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밥퍼 배식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싫을 정도로 내 마음 안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원장님 부부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저였다면 못했을 것 같은 일을 감사로 감당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을지라도 한국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쿤두치에서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것들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탄자니아 어려운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5. 이태형 (다일복지재단 후원개발팀장)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영상을 통해 보았던 탄자니아, 그 사랑의 땅을 직접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탄자니아 땅을 밟았을 때 설렘과 평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아름답고 정겨운 느낌이 강하여 웬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던 지역 '바가모요(내 심장을 두고 간다.)'. 바가모요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내 심장을 두고 간다'라는 노예들의 마지막 고백이 마음 한편에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땅에 무릎 꿇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현지인 예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뜨거운 성령의 예배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사역지 쿤두치 체석장을 위해 그리고 이후 쿤두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탄자니아다일공동체의 비전과 비전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6. 이원호 (소망성결교회 담임목사)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열망의 시작!! 이번 탄자니아 비전트립은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탄자니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고 꼭 우리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린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슬슬 목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나이에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도 큰데 조금도 갚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도전과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관리실

1. 부서 소개

후원관리실은 후원회원님께서 좀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후원회원님과 다일복지재단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수영 실장
“후원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조율하고 있어요.”



정민경 대리
“후원회원님의 신규*변경*해지처리, 후원회원 정보 입력 및 후원관리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아동결연POOL관리 및 DB관리, 전화상담 업무와 전반적인 후원금관리(CMS자동이체, 금융결제원업무, 신용카드 결제/승인, 미납안내, SMS발송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리 간사
“새로운 신입간사로 경영지원실, 후원관리실에 배치받아 각 실의 업무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이유리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분들의 사랑을 통해, 매일 작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

2. 부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다일공동체에 후원하시는 후원자 분들이 불편함 없이 후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서 후원창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가장 큰 목표예요.

3. 나누고 싶은 사례

TV프로그램을 통해 다일공동체를 접하신 후원회원님께서 직접 다일복지재단을 찾아오셔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적이 있어요. 다일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직접 찾아와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

4. 부서별 질문

Q. 후원방법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후원 방법에는 CMS(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전화가 있어요.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후원도 신용카드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신용카드 후원은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기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편리하죠~.

현재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후원회원님들의 기본 정보 변경 및 후원금 입금내역 확인,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경영지원실

1. 부서 소개

경영지원실에서는 다일복지재단의 모든 회계, 인사, 총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재단의 살림살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신수영 실장

“재단의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하고 있고 경리회계업무 감사, 인사관리,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

2. 부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개인,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살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나누고 싶은 사례

경영지원실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분원의 사업비 집행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지원실에서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회계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회계감사를 통해서 해외분원에서 회계 관리

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해외분원의 부족한 부분과 어려움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분원의 자산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여 해외분원의 살림을 더욱 튼튼하고 견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 부서별 질문

Q. 요즘 비영리 기관의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다일복지재단에서는 매년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정관 및 예산 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다일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재무제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350ppm 캠페인

할 수 있는 것부터!



Celebrate World Environment Day 2013

세계 환경의 날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시 제정, 그해 UN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부터 환경의 날에 환경 보호 분야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엔 서울에서 UNEP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캄보디아 다일 센터에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350ppm 캠페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350ppm 이하로 줄여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를 위해 프놈프 라움 다일 센터에서는 불필요한 콘센트 뽑기, 저녁 1시간 동안 전기 사용 안하기 등 절전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지구를 구하는
350ppm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김혜경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캄보디아 김혜경 원장 855-78-708080



희망을 키우는 학교, 대안학교 Hope School



박종원
미주/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지난 4월 22일, 네팔 머느하르 강변에 작은 학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비록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그동안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아이들에게는 꿈만 같은 학교입니다.

네팔의 아이들은 4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육열이 높아 개인 과외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느하르 강변의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와 티베트 지역 거주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이 아이들은 매일 막노동, 혹은 돌을 나르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생활합니다.

KOICA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Hope School>은 네팔에서 시행하는 검정고시와 시험을 통해 합격한 아이들을 정규 학교에 입학시키고,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록달록 예쁘게 채색된 대안학교 건물 안에서 아이들은 매일 네팔어와 영어, 수학, 과학, 음악 공부를 합니다. 매일 아침 센터에 와서 하루 한끼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학교 급식으로 먹는 점심식사는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처음 대안학교를 계획할 때 예상했던 학생 인원 50명이 훌쩍 넘어, 현재 80명의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Hope school>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 네팔의 희망이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을 함께 지켜봐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OPE SCHOOL> Daily Routine

	Group 1	Group 2	Group 3
1st	Naina	Nepali	Maths
10:30-11:0	Sunita	Binita	Nabin
2nd	Naina	Nepali	Nepali
11:00-11:30	Nabin	Bishnu	Binita
Break Time 11:30 - 11:40			
3rd	Binita	Maths	English
11:40-12:10	Bishnu	Nabin	Sunita
4th	Binita	English	Science
12:10-12:40	Nabin	Sunita	Naina
Lunch Time 12:40 - 01:40			
5th	Naina	Sports/Music	Sports/Music
01:40-02:10	Sunita (Sleeping Time)	Nabin/Kul	Nabin/Kul
6th	Sunita	Science	Nepali
02:10-02:40	Bishnu	Naina	Binita

SUN/MON/FRI : Music TUE/THU : Sports FRI : ECA

네팔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네팔 박종원 원장
977-98494-58330

‘같이’ 그리고 ‘함께’ 한일이화

먼저 5월 2일 오병이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행복한 도시락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6월에 밥퍼나눔운동본부 봉사에 임직원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와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회사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에는 울산과 아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울산공장이 본사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주요 부서가 있어서 본사 기능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본사 기능을 하는 주요 부서가 서울 본사로 합치면서 서서히 서울 본사가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울산과 아산 지역의 봉사에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울산, 아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봉사활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해 다일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밥퍼라는 좋은 나눔운동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매일 1회씩 본사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밥퍼에 오셔서 봉사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가실 때 보람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 밥퍼봉사를 하시면서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라고 할까요? 소회가 있으시다면요?

처음 이 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기 전에 듣기로는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10시정도부터 오시겠다고 생각했는데, 9시에 도착해 보니 그때 이미 많은 어르신들께서 와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위해 100원을 받으신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밥퍼의 배려에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도 밝지만, 어르신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진지를 드시고 가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도시락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이화에서 하시는 다양한 나눔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행복한 도시락 운동에 참여해 준 당사 전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뿐만 아니라, 관계사인 주식회사 대동, STF, 신창코넥타, 우창정기, 두양산업, 한일C&F, 한일내장, 탑금속의 전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5월 2일 오병이어의 날에 전달 받은 도시락에 대해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사의 임직원도 이러한 좋은 뜻에 동참해 주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어서 우리 한일이화뿐만 아니라 관계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훌륭해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울산에 100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원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 한일이화 사원들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집을 수리해 주는 운동도 하고 있으며, 여사원 중심으로 김장 담그기,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대학교에도 발전기금을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울산과 비슷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 초부터 본사인 서울에서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성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에 힘써주시고 있으신데요, 한일이화의 나눔을 통해서 만났던 이웃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인가요?

‘원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팔지 못한 것에 대해 선들러가 매우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도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해 드리는 것 보다, 더 큰 고마움을 표현해 주실 때, 정말이지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못 도와 드리는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작지만 저희가 도와 드리는 것을 밑거름으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게 됩니다.

회장님께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에서부터 국내까지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실제로 지금까지 거창하게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정리해서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이미 장애인고용촉진 대통령표창도 수상하였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공헌은 크게 생각하기 보다, 우리회사 가족부터,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사들부터 그리고 우리 지역부터,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와 드린다면, 그것이 사회공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일공동체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단체와 연계가 된다면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제품을 사 주시는 소비자분들께 다시 환원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일이화의 사회공헌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회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우리 주위에 계시는 지역 사회 주민

들을 위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회사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면 다일공동체와 같이 기관에서 주관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에도 이러한 사회공헌에 대한 정신을 전파해서 중국, 인도, 터키, 슬로바키아, 미국, 브라질 등 각 나라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일이화에서 생각하시는 나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회사가 생각하는 나눔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회사와 같은 산업의 특성은 제조인력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회사 사원들뿐만 아니라 수 천명이 넘는 협력사 가족들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나눔의 활동도 서로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같이’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천사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의 국내외의 사업에 동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기업을 기다립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밥퍼는 000이다

축복이다 외교부 강호중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하루의 짧은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

화수분이다 보석상자 화수분 화수분은 재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보석상자입니다. 밥퍼는 바로 이 화수분과 같습니다. 밥을 퍼낼수록, 밥통이 비어져 나갈수록 그 자리에 사랑이 가득가득 메어집니다. 또 그 사랑이 다시 밥으로 사랑으로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밥퍼도 보석상자도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가득해지길 기도합니다.

투자다 세인고등학교 김혜림 오늘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으로 '밥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식당 체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됐던 것 같다. 어르신들이 인사를 받으시고 웃어주시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고, 하는 중에는 힘든 줄 몰랐던 것 같다. 살아 있을 때 밥퍼등의 활동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다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몇배로 돌려받기 때문에 투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체력이 필요하다 LG생활건강 전찬 그동안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들었던 "밥퍼" 처음엔 '몇시간만 봉사하면'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왔지만 막상 와 보니 밥퍼가 베풀어 주는 것은 밥퍼에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까지도 뜻깊은 감동을 줬다. 우리가 준비해서 하루 한끼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뜻깊은 하루를 보낼 것 같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건강해야하고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가슴 찡한 감동이다 외환은행 이경숙 날씨도 좋은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봉사활동을 오려니 매우 귀찮게 느껴졌는데 막상 와서 영상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찡해옵니다. 몇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녹초가 되긴 했으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기획될 때 다시 이 자리에 오고 싶습니다.

자전운동이다 대림C&S 이병락 Why? 계속되어 줘야 하니깐! 작은 봉사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다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오늘 저희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창립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저희가 3주년 기념일에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모든 직원이 함께 동참하여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이다 산업인력공단 황종록 밥퍼봉사가 이번이 두번째인데 은퇴 후 해야할 버킷리스트중 한가지로 등록되는 날이다. 특히 3월 고관절괴사로 인공관절 시술 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육체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잘 감당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내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비오는 날 단단한 연못에 파문이 일듯이 나눔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눈물이다 서울특별시청 오제성 집에 두고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소중한 밥을 싸가지고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고 갑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시간싸움이다 썬앳푸드 임두리 아침부터 점심까지를 위해 멀리서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주린 배로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전력을 다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배우 김지석님의 팬카페에서 회원들과 배우 김지석님이 함께 참여한 밥퍼봉사는 종일 활기차게, 웃음이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팬카페 보석상자, 김지석님 화이팅!!! (사진은 같이 봉사한 소망교회 고등부와 함께)



개인휴가를 반납하고 회비를 모아 밥퍼봉사를 오셨습니다. 밥퍼는 처음이셨지만 봉사가 몸에 베어있어서인지 배식에 필요한 재료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루 식사하시는 어르신이 천여분 되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라면부터 선뜻 보내주신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사업부 시판영업부문의 임직원분들이 팀야유회 행사를 밥퍼 봉사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한분 한분 정성껏 모아오신 후원금으로 맘둘려 마련한 점심식사를 직접 준비해드릴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시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청호나이스 작은사랑나눔기 실천운동본부 임직원들이 매달 모은 후원금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비어가던 공간에 청호나이스의 쌀후원이 마중물이 되어 밥퍼의 공간이 넘쳐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눔이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청호나이스 감사합니다. (사진은 KBS벨런트 한울타리 봉사팀과 함께)



유럽 미녀벗님(이성희-윌 헤미나님, 최영미-베아트리스님, 황혜정-막시마님)들이 영성수련 후 은혜 충만한 얼굴, 맑고 밝은 얼굴로 밥퍼를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흘러 보내주신 유럽벗님들 감사합니다.



51주년 창립기념으로 이루어진 사랑나눔 봉사활동으로 대림C&S에서 밥퍼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오후행사로 체육대회를 앞두고 서로 다른색상의 유니폼을 팀별로 입으셨는데 봉사때부터 팀별로 선한 경쟁을 하셔서 어느때보다 뜨거운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림C&S 최고입니다.



단체봉사가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던 봉사 담당자의 염려를 가뿐히 뒤로하고 젊음과 패기로 신나게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한 마음으로 오후 근무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봉사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매월 한번씩 꼭 잊지 않고 오시는 한일이화는 이번엔 박성정대표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여덟곳의 협력기업과 함께 모금을 하셔서 행복한 도시락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한일이화가 최고야!!



창립50주년을 맞은 MG새마을금고는 밥퍼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며칠동안의 양식을 채워주신 보이지 않는 천사기업입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 천사기업 새마을금고 축복합니다.

나는 있는 자로다

- Helen Mallicoat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 (I Am)이다.”
 주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과거 속에서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었던 자로서이다’ (I Was)
 가 아니다.

네가 미래 속엿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을 자로서이다’ (I Will Be)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별로 힘들지 않다.
 나는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 (I Am)이기 때문이다.”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이루어지게 하소서](도서출판 마음의 숲)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김연수 시인이 소중하게 여겨온 기도시들을 번역하여 엮은 책으로 신앙인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로 받고 싶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이며, 시집으로는
 <숨어사는 신화> <그대가 내게로 오면> <아득한 별에 꽃씨 묻으며> <실락원의 연인들> <꽃심>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등이 있습니다.

Vietnam·China

베트남

1. 6월 1일 베트남 어린이날 행사



베트남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호치민 7군에 있는 아동보호 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빈흥화 지역 어린이 300명을 초대하여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대.청.밥 회원 33명이 아침 일찍 모여 선물을 포장하였습니다. 밥퍼 사역지에서는 2개 팀으로 나누어 1팀은 선물을 나누고 2팀은 급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철모르고 장난만 치던 대.청.밥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물을 전해주는 대.청.밥 회원이나 선물을 전해 받는 아이들 모두 함박웃음이 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했던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다음 봉사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고 고백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랑스럽고 예쁜 대.청.밥 파이팅!!!

2. 롯데리아 직원들 봉사

베트남에 14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리아 직원들이 밥퍼 사역지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배식 재료



비는 물론이고 밥퍼 봉사에 필요한 앞치마도 제작하여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1회 후원과 봉사를 해주시기로 하였고 베트남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햄버거와 음료, 풍선도 후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 호치민 한인여성합창단 관계자 만남

호치민 한인여성합창단 관계자분들이 푸미흥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교민잡지와 소식을 통하여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며, 호치민 한인여성합창단이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그 동안 모아둔 후원금을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에 후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베트남다일공동체에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며 3,800만동(약 \$1,900)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다일공동체에서 좋은 일 많이 하길 부탁한다며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한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 받아도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꼭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할벗은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해 달라며 정성껏 준비하여 보내 주시는 물품을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나 주변국에도 전해 주고 싶은데 운반할 차량이 없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20,000이 더 필요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에 날개를 달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천사가 되어 주세요.

중국

1. 중국어린이날



중국의 어린이날은 6월1일, 국제 아동절에 함께 합니다. 다일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육일절(어린이날)을 맞아 북산으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생 언니, 형들은 등교를 해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유치원생과 소학생들이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각종 게임도 준비해 산에 올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먹은 맛있는 짜장면과 탕수육은 최고였습니다!

2. 중국다일어린이집 권윤경 영어선생님

중국다일어린이집에 영어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영어선생님은 한국에서 중국훈춘으로 이사오신 권윤경 선생님이십니다.

Cambodia · Philippines



권선생님은 한국에서 입시전문 영어 학원 선생님이셨으며 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오랜 후원회원이기도 합니다. 훈춘에 오시자마자 달란트를 기쁘게 내어놓고 아이들에게 주 3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실때마다 다일어린이집 막내 송현이도 틈틈히 봐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맛있는 간식도 준비 해주십니다. 권윤경 선생님과 아들 태인!! 그분들이 중다일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3. 즐거운 단오절



오늘은 단오입니다. 중국은 단오가 쉬는날입니다. 아이들의 학교마다 토요일, 주일에 정상수업을 하고 월,화,수 3일간 단오 휴식을 했습니다. 중국에선 단오에 쫄쫄(대나무잎으로 싸 찰밥)와 차단(차잎과 간장등에 삶아조린 오리알이나 계란)을 먹습니다. 올해에는 훈춘의 창업관련 인터넷

동호회 봉사자 24분이 방문하셔서 다일어린이집 가족들과 함께 쫄쫄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단오절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1. 캄보디아 부레옥잠 공예



캄보디아 여성주인을 위한 소득창출 사업!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부레옥잠을 이용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방, 머리띠, 팔찌, 바구니 등形形色색의 공예품은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아주머니들이 공예품을 만들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공예품 만들기로 생계에 도움을 주고, 또 자신도 즐거우니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 전통공예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1. Dail Dream Day Care Center 제3기 입학식



제 3기 입학식이 6월 17일에 있었습니다. 39명의 어린이들이 원복을 입고 호기심 어린 눈망울을 반짝이며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통제가 안 되는 어린이들이지만 하루 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변화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참 설레입니다. 어린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장차 필리핀의 인재로, 하나님 나라의 재목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2. 최일도 목사님 필리핀집회 및 필다일비전트립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필다일 비전트립이 7월 3일~10일(7박8일)에 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한인연합교회'에서 3일간 집회, '길벗교회'에서 주일낮 예배 설교 등을 통하여 최일도 목사님께서 필리핀의 성도들을 만나십니다.

또, 필리핀다일공동체 밥퍼와 유치원에서 봉사활동도 있으며,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후에는 휴양도 합니다. 최일도목사님과 함께 하는 이번 비전트립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필리핀다일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다일은 다일의 해외분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지리적으로도 외진 데 위치하여 방문자도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후원의 손길도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 아이들 먹이고 치료해주고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원장으로서 애가 많이 탑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네 팔

1. 대안학교 호프스쿨 학생들 교복을 입다



우리 호프스쿨 학생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리와 관광지에서 구걸하며 교복을 입고 등학교하는 또래의 아이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마냥 바라보지만 하던 아이들인지라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마침 센터를 방문한 몇몇 학부모님들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지나가던 마을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복 색깔처럼 파란 희망을 열심히 일구어가는 호프스쿨과 학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 언지리와 카잘 어머니의 죽음과 갑작스런 이사

대안학교 호프스쿨에서 공부하는 언지리와 카잘의 어머니가 3년간 앓아온 질병으로 35세의 나이로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인도사람들이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국경을 넘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까지 와서 텐트촌에서 남편과 5남매를 놓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노동으로, 아이들은 구걸로 살아가는 처지라 아파도 제대로 병원도 못가고 약도 못먹었습니다.

두평 남짓한 텐트집에 이불로 시신을 덮고 사방에 향을 피우고 슬퍼하는 언지리와 카잘 자매를 보니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호프스쿨로 인해 자녀들이 더이상 구걸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던 아이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길,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아이들과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향어린이집

1. 봄소풍



지난 5월 23일, 따뜻해진 봄이 되어 예향어린이집 친구들과 서울숲으로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분홍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모여서 기분이 너무 좋은지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즐거운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나비정원에 들어가서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들도 만나고 곤충박물관에 가서는

Nepal · Yebyng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개구리 등을 관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던 만큼 엄마가 짜주신 맛있는 도시락도 배부르게 다 먹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2. 주치의 협정병원연계 유아위생교육 - 손씻기 교육

6월 3일에는 예향어린이집과 주치의 협정병원으로 체결되어 있는 협정병원에서 유아 위생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께서 손씻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도 해주셨고, 올바르게 손을 씻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위생교육을 통하여 우리 예향친구들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 동화구연

강남구 시니어플라자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이 방문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동화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와 노래로 인사도 나누어보고 할머니께서 준비해오신 인형을 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할머니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자리에 계속 앉아있던 예향친구들이었어요.

4. 6월 생일잔치



다일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니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940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